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3. 2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프랑스, 모스크바 테러에 보안태세 최고단계로 격상
 - 3.25 언론은 「마크롱」 프랑스 대통령이 ISIS의 모스크바 테러 발생 직후 안보 회의를 소집해 보안태세를 최고단계로 격상, 이는 7월 개막 예정인 프랑스 올림픽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
 - ※ 프랑스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ISIS나 동조자들에 의해 대형테러가 발생했으며, 특히 '15년 수도 파리 일대에서 ISIS의 연쇄 테러로 사망 130명, 부상 400명이 발생
- 독일, 유럽축구선수권대회(유로 2024) 기간 국경통제 강화
 - 3.26 독일 「낸시 패저」 내무부 장관은 유로 2024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는 보안 문제이며, 이슬람 극단주의부터 홀리건까지 잠재적 폭력 행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
 - ※ 독일 보안당국은 자국 내에서 암약하는 ISIS-K 조직원 수백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, 이들이 유로 2024를 틈타 독일에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

미주

- 美 의회,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(UNRWA) 지원 금지
 - 3.20 언론은 美 의회와 백악관이 합의한 금년도 본예산에 '25년까지 UNRWA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, 그간 미국은 UNRWA에 매년 약 3~4억 달러를 기부해왔다고 보도
 - ※ 미국은 지원 재개 여부는 UN의 조사 및 대응조치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 발표
- 美 정보기관, 인종 차별적 용어 '블랙리스트' 사용 자제 권고
 - 3.25 언론은 美 정보기관이 인종차별적 이유로 '블랙리스트'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. 미국 내 보수층에서는 CIA등 정보기관의 활동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보도
 - ※ 同 지침은 젠더(Gender)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, 이슬람과 테러리즘을 동일시해 내부 무슬림계 동료를 소외시키는 실태 등도 지적

중 동

○ 이스라엘 방위軍, 하마스 고위지도자 체포

- 3.21 언론은 이스라엘 방위군(IDF)이 가자지구 북부에 위치한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3일째 공격 중인 가운데, 90여명을 사살하고 하마스 고위지도자를 포함해 350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
※ 하마스 고위지도자인 「마흐무드 카와스메도」는 심문을 위해 이스라엘로 압송

아 · 태평양

○ 아프가니스탄, ISIS 소행 폭탄테러 발생

- 3.24 언론은 아프가니스탄 제2의 도시이자 탈레반 최고지도자 「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」가 거주하는 남부 칸다하르에서 ISIS 소행 폭탄 테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

※ 탈레반과 ISIS는 같은 이슬람 수니파 계열이지만, ISIS는 탈레반이 미국과 평화 협상을 벌이고 시아파에 온건한 태도를 유지한다며 비난하는 등 적대관계를 유지

○ 파키스탄, 차량폭탄테러로 중국인 등 6명 사망

- 3.26 언론은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팍툰콰주에서 한 괴한이 중국·파키스탄 경제회랑(CPEC) 건설사업 차량 행렬로 폭발물이 탑재된 차량이 돌진하여 중국인 5명과 현지인 운전사가 사망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아직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, 수년 전부터 CPEC 관련 사업 종사 중국인 대상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에서 무장괴한에 납치됐던 학생 등 200여명 석방

- 3.24 언론은 지난 7일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쿠리가 마을의 한 공립 학교에서 집회를 위해 모여있다 무장 괴한들에 의해 납치된 200명 이상의 학생과 직원 등이 모두 석방되었다고 보도

※ 괴한들은 이들의 석방을 위해 69만달러(약 9억 2,900만원)를 요구했으며 카두나 주지사 측은 이들의 석방을 조율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자제

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, 무차별 총격 테러

- '24.3.22 러시아 모스크바 '크로커스 시티홀' 공연장에 무장 괴한들이 난입, 총기 난사 후 방화하여 200여명(140여명 사망)의 사상자 발생
 - 러 연방보안국은 테러 핵심 용의자(4명)를 포함한 사건관련자 11명 체포
 - ※ 외신은 “공연장 입구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고, 소지품 검사도 없었다”고 보도
 - 사건 직후, ISIS 아프간 지부인 ISIS-호라산(ISIS-K)은 '러시아의 무슬림 탄압을 이유로 공격을 주도했다'며 테러의 배후를 자처
 - ※ 美 反테러 연구기관 대테러 분석가는 “ISIS-K는 지난 2년간 러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해왔고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선전전을 펼쳐 왔다”고 지적
 - 「푸틴」 대통령은 2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 후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으나, 「젤렌스키」 대통령은 '同 테러와 무관하다'며 의혹 일축
 - 한편, 미국은 '同 테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ISIS에 있으며, 이달 초 ISIS 테러 가능성에 대해 러 정부에 정보를 공유했었다'라는 성명을 발표
- ⇒ 이번 사건으로 극단주의 단체들이 유사 테러를 감행할 우려 존재, 국내 다중운집시설 테러대비실태 점검 및 미비점 보완 필요

< ISIS-호라산 지부(ISIS-K) >

- (목표)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 - *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를 지칭하는 옛 지명
- (테러단체 지정) UN('19.5), 미국('16.1), 호주('17.11), 인도('18.6)
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軍警 및 정부청사·다중운집 장소 대상 자폭테러,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
- (생성배경) '아프간 탈레반'·'파키스탄 탈레반' 조직에서 소외된 중견 간부들(특히, 파키스탄 부족 자치지역 출신)이 이탈, ISIS에 충성맹세 후 결성
- (주요테러)
 - '21.8월 카불 공항·인근 호텔 자폭테러(182명 사망·200명 부상)
 - '24.2월 이란 케르만 혁명수비대 사령관 추모식 폭탄테러(84명 사망)

※ ISIS에 의한 러시아 테러 사례 : '15년 이집트 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 폭파 테러 (탑승자 224명 전원 사망) / '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(15명 사망)